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연사소개 및 발표요지

< Session 1 : 기초 강연 >

○ Thomas E. Lovejoy (미국 하인즈 센터)

- 기후변화: 자연에 대한 전망

최근의 기후변화가 생물, 생태계 및 인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그 원인을 소개하고, 그 심각성을 진단하며,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지에 대하여 예측 모델에 따라 추론한다. 나아가 기후온난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라는 범지구적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제안하며, 그러한 노력에 따라 예측 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본다. 또한 국지적인 환경문제와 범지구적 기후변화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하여도 소개한다.

Thomas E. Lovejoy : 미국 의회 환경정책연구소인 하인즈 센터 소장이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유엔재단과 세계은행의 최고 고문 및 세계야생동물기금 부총재를 역임했으며, 현재 지구환경기금 과학기술자문단 의장을 맡고 있다. 열대우림 파괴 문제를 전 세계에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채무를 생태계 및 환경보호로 면제해 주는 “환경스와프” (Debt-for-Nature Swap) 정책을 입안하였고, 미국 공영방송 "자연(Nature)" 시리즈물의 주창자이다.

주요경력 : 세계은행(World Bank) 환경문제 최고 고문

유엔재단(United Nations Foundation) 환경문제 최고 고문

스미소니언 연구소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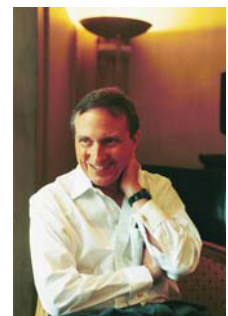
세계야생동물기금(World Wildlife Fund) 부총재

미국 역대 대통령 레이건, 부시, 클린턴 행정부의 과학 및 환경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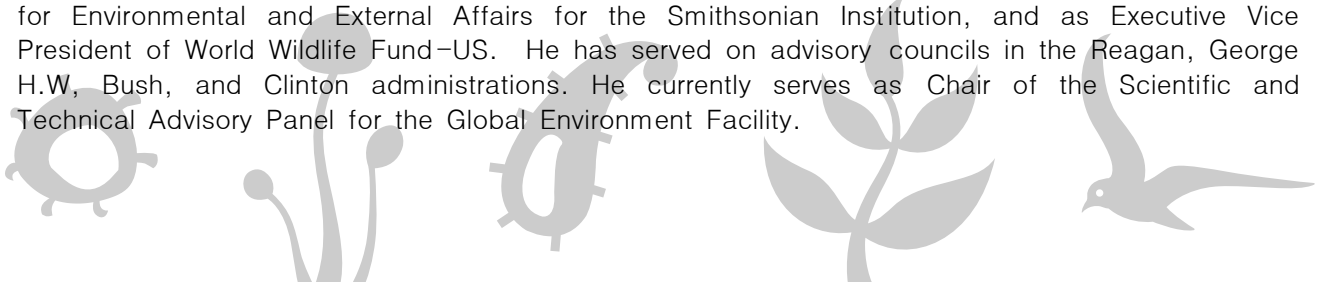
수상 및 저서 : 환경보존에 대한 공로로 Tyler 상 수상 (2001)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2007), 지구온난화와 생물다양성(1994) 등 수많은 저서 출간

E-mail: lovejoy@heinzcenter.org



Thomas E. Lovejoy is President of the Heinz Center for Science, Economics and the Environment. An ecologist who has worked in the Brazilian Amazon since 1965, he works on the interface of science and environmental policy. Starting in the 1970's he helped bring attention to the issue of tropical deforestation and in 1980 published the first estimate of global extinction rates (in the Global 2000 Report to the President). He conceived the idea for the long term study on forest fragmentation in the Amazon (started in 1978) which is the largest experiment in landscape ecology, the Minimum Critical Size of Ecosystems project. He also coined the term "Biological diversity", originated the concept of debt-for-nature swaps and has work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for more than 20 years. He is the founder of the public television series "Nature". In the past, he served as the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Foundation, as the Chief Biodiversity Advisor and Lead Specialist for the Environment for the Latin American region for the World Bank, as the Assistant Secretary for Environmental and External Affairs for the Smithsonian Institution, and as Executive Vice President of World Wildlife Fund-US. He has served on advisory councils in the Reagan, George H.W. Bush, and Clinton administrations. He currently serves as Chair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Panel for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Session II: 심포지엄 1 >

○ 이병훈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에서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동식물의 생물계절학(phenology) 및 분포에 미친 영향 등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연구의 현주소를 발표한다. 또한 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로 인한 일부 곤충의 증가 및 분포확산 등 미래에 일어날 변화를 예측한 연구에 대하여 소개하고, 국가적 차원의 치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구적 문제들이 인간의 본성과 관련됨을 들어 현재의 대중요법 시행과 함께 원인요법으로서 <‘인간의 본성’ 연구를 위한 지구적 선도사업>의 출범을 제안한다.



이병훈 교수 (Prof. Byung Hoon Lee)

서울대학교 석사,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생물학 (곤충분류학)

(현) 전북대학교 생물과학부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한국동물분류학회 회장, 한국곤충학회 회장, 한국생물다양성협의회 회장, 자연박물관연구협회 회장, 아시아-서태평양생물다양성망(DIWPA) 운영위원 역임

1970년대부터 한반도와 동남아의 곤충(특토기목)에 대한 분류, 계통 및 진화 연구. 사회생물학,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박물관 관련 연구. 다수의 논문과 저술 발간.

E-mail: ybhoon3@paran.com

○ Graham W. Elmes (영국 생태학 및 수문학 센터)

- 개미의 군집 모델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사회성 기생자의 특별한 예

영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부전나비와 뿔개미의 관계를 설명하며, 기후변화가 어떻게 하나의 생물종을 멸종시킬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사회성 기생을 하는 부전나비의 애벌레는 뿔개미집에 들어가 개미의 애벌레 행세를 하며 먹이를 얻어먹으며 자란다. 이들 종의 개체수와 분포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뿔개미는 온도 및 습도에 큰 영향을 받아, 2도 이하의 작은 온도 변화에도 뿔개미가 영향을 받고 이어서 뿔개미에 기생하는 부전나비가 멸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r. Graham W. Elmes

Doctor of Science in Zoology, London University

Research Fellow,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 Institute Terrestrial Ecology, The Nature Conservancy, UK

(현) 영국 육상생태연구소 생태학 및 수문학 센터 상임연구원

1961년 이래 영국 정부 연구기관에 근무하며 전 세계의 개미연구를 주도, 13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 전 세계적으로 Britain, Ukraine, Russia, Turkey, China, Japan, Korea, Finland, Denmark, Germany, France, Spain, Poland, Ireland, Holland, Belgium, Switzerland, Czech Republic, Hungary의 개미를 조사 연구.

E-mail: gwe@ceh.ac.uk



< Session III: 심포지엄 2 >

○ Kathy Ann Miller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 캘리포니아의 외래 해조류: 기후변화의 징조?


캘리포니아의 해조류 식물상은 높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1976년 669종으로 기록된 이래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1종의 외래종이 보고되었다. 외래종의 대부분은 원산지가 아시아로, 지난 30년간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외래종의 증가를 엘니뇨 및 기후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p>Dr. Kathy Ann Miller Ph.D. in Botan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Research Staff, University Herbarium,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lifornia, USA (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식물원 연구원 1980년대부터 버클리대, 남가주대 등지에서 해조류 연구.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뉴질랜드 등지에서 해조류의 분류, 생태, 진화, 외래종 연구 E-mail: kathyannmiller@berkeley.edu</p>
---	---

○ 공우석 (경희대학교 교수)

- 지구온난화와 취약한 고산생태계

우리나라의 고산 식생의 시공간적 변화를 기후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특히 최근의 지구온난화가 한라산과 설악산의 고산 및 아고산 식물상과 식생에 미친 영향을 소개한다. 많은 고산식물의 분포 하한계선이 여름철 최고온도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많은 생물과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p>공우석 교수 (Prof. Woo-seok Kong) Ph.D., University of Hull, UK (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사) 대한지리학회 편집위원장, 생물지리학 1980년대부터 한반도 및 외국의 식물상에 대한 생물기후학, 생물지리학 연구. 특히 고산생태계의 생물지리학적 연구로 1989년 “The Biogeographic Divisions of Korea and Their Past and Present Environme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Arctic-Alpine and Alpine Floras”의 논문으로 영국 Hull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음. 저서: 생물지리학으로 본 우리식물의 지리와 생태 (2007), 북한의 자연생태계 (2006), 한반도 식생사 (2003) E-mail: wskong@khu.ac.kr</p>
---	--



○ Hideo Nakaya (일본 가고시마 대학교)

- 신제3기의 환경변화와 포유류의 진화

화석 등 지질학적 시대의 고환경(古環境)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고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포유류가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포유류의 화석, 동위원소 등을 사용한 연구로 신제3기의 고환경과 환경변화를 재구성하고, 이 시대에 일어난 고환경의 변화가 영장류의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 신제3기(Neogene) : 신생대의 마지막 시기, 약 23백만년전부터 180만년전

	<p>Prof. Hideo Nakaya Doctor of Science, Hokkaido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Faculty of Science, Kagoshima University, Kagoshima, Japan (현) 가고시마대학교 교수 1970년대 이래 홋카이도대학, 교토대학, 가가와대학, 가고시마대학에서 포유류의 진화 및 고생태 연구. 1990년 “Late Miocene Mammalian Fauna from the Namurungule Formation of Samburu Hills, Northern Kenya” 연구로 박사학위 받음 E-mail: nakaya@sci.kagoshima-u.ac.jp</p>
---	--

